

과목: 대학글쓰기

이름: 김현우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311447

주제: 2. 생물학적 노화를 멈추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당신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과학기술에 찬성하는가?

제목: 신의 기술의 부작용

1. 자신감 있는 발표태도가 보기 좋음.
2.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이 있음.
3. 본문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에 내용만 더 채운다면 더 완성도 있는 에세이가 될 것임.

1. 서론

난 기술의 발전을 사랑한다. 왜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내 삶의 불편한 요소들이 조금씩 줄어들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 뼈가 으스러지거나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도 치료가 된다는 걸 보면 신기함을 넘어서 경이로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고도로 발달 된 기술의 세상에서, 의학의 발전은 영생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영생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이 바라오던 기술 중 하나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론 불로초를 찾아 영생을 꾀하던 진시황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동양에는 봉황, 서양에는 피닉스 같은 불사의 존재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바라왔고, 현재의 인류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라는 점이 이 주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 본문

사실 이 주제는 내가 중학교 1학년일 때부터 조금씩 고민해오던 주제이다. 당시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채피"라는 로봇 영화를 보여주셨었다. 이 영화에선 인격을 가진 로봇인 "채피"가 본인의 죽은 인간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서 로봇에 엄마의 의식을, 영화상의 표현으로는 마음을 이식시켜 다시 되살리는 충격적인 내용의 엔딩이 나온다. 영화 감상을 마친 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인공적인 기술들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셨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반대의견을 피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 질문에 제대로 된 의견이나 반박을 하지 못하였었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쪽 고민해오고 있는 것 같다. 1)

1) <https://zrr.kr/aWw4>
(영화 "채피")

2.1

내가 영생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의 인구수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몇 년째 빌빌거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의 인구수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다. 2013년 지구의 인구가 약 72억 명이었고, 2023년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명이 넘는 걸 보면 지구의 인구수 증가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생의 기술이 도입된다면 인구 증가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구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의 인구수로도 자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올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은 7월 28일로 끝났다고 하고, 28일 이후의 남은 기간은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담보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이유도 이 까닭이 클 것이다. 자원 고갈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 부족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증가한다.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 주택을 더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가 베어질 것이다. 그리고 베어진 나무들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데 인구 폭발의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지구의 생명체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지구의 인구 적정 수는 15~20억 명이라고 하고, 식량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최대 80억 명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다. 영생의 기술이 없어도 지구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있다. 지구 인구의 증가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져오는데 그런 인구 증가에 박차를 가해줄 영생의 기술은 인류 멸망 하이패스권일 수도 있다. 2)

2.2

내가 영생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음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모순적인 말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런 죽음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붙는 건 확실히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내가 죽음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삶의 유한성"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은 당연히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주어진 짧은 삶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 '주어진 짧은 삶'이라는 유한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만약 인간의 삶이 무한하고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인간은 무기력한 생물이 될 것이다. 아마도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무기력한 생물이 된다는 주장이 영생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가장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다면 원하는 것을 마

2) <https://platum.kr/archives/193782>

(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만 화성에 가자고 하는 것일까?)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07290001>

(GFN의 경고..."한국처럼 자원 평평 쓰면 지구 4개 필요하다")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539>

(뉴스티엔티 시론]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음껏 해나갈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 주장엔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몸이 늙지 않음과 동시에 뇌도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 영생을 얻는다면 초반에는 찬성파들의 말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시간이 무한하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뇌는 무한히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론 영생을 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다음 세대들로 대체될수록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뇌의 기능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점점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유한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러한 삶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순적이게도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3)

3. 결론

인간의 삶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가 짜여 있다. 10대까지는 교육을 받고, 20대부터는 받은 교육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3~40대가 되면 다음 세대들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고, 이후에는 은퇴하여 편안하게 정년을 맞이하고, 시간이 지나 황혼기에 이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을 맞이한다. 이 커리큘럼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아름다움이다. 나이에 따라 우리의 역할은 계속 달라지지만 이러한 삶의 커리큘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달라지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의 기술은 확실히 매력적인 기술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큘럼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크게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신의 기술의 부작용을 감당 가능하게 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궁금하기만 하지 딱히 체험하고 싶지는 않다. 난 지금의 인생 커리큘럼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주어진 삶의 유한성 안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

3)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74483>
([논술] 영원한 삶은 행복할까?)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25>
(영원한 삶은 행복할까?)
<https://brunch.co.kr/@yuhrt/12>
(영생의 재앙)